

親熟性和 歸因이 아동의 喜捨行動에 미치는 영향

송 길 연*

I. 緒 論	IV. 方 法
II. 先行研究 考察	V. 結 果
III. 研究目的	VI. 論 議

I. 緒 論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는 여러가지로 다양한 친절하고 동정적인 행동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도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아울러 사회적 이익과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두 극단 사이의 어디엔가에 위치할 것이다.

심리학에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60년대와 70년대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로 상이한 여러 관점에서 흥미 있는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친사회적 행동이란 “되돌아 올 어떤 외적 보상을 기대함이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되며(Mussen & Eisenberg-Berg, 1977 ; Bar-Tal, 1976),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에는 조력행동(helping), 자선행동(charity), 회사행동(sharing)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으로 실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목적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특히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및 사회심리학 등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하여 왔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발달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연구는 초기 사회화의 주요 목표가 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Eisenberg, 1982).

둘째, 친사회적 행동은 어떤 하나의 성격특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특성이 발달해가는 과정 및 그 기제를 밝히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Mussen & Eisenberg-Berg, 1977).

* 本校 教育學 講師

세째로는, 친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사회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어떠한 변인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가를 밝힘으로써 이타행동을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여러 이론들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Krebs, 1970).

국내에서는 서 봉연(1984)이 「친사회적 행동의 규정요인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규정요인으로서 상황요인, 인지요인 및 정서요인 등을 들고 이 요인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 요인별 연구동향과 함께 review 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로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이와 더불어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어느 연령(또는 발달시기)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가(Zahn-Waxler & Radke-Yarrow, 1979; Eisenberg, 1982), 친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일 것인가(Staub, 1970; Green & Schneider, 1974), 또는 연령증가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적 변화의 선행조건은 무엇인가(Bar-Tal, Raviv & Shavit, 1981)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저연령층에는 어느 요인의 영향력이 크고, 고연령층에는 어떤 요인의 영향력이 클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중의 하나인 회사회동의 수행에 있어서 초기 아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후기 아동기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어지는 요인을 선택하여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先行研究 考察

親社會的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한 연구에서 Pruitt(1968)는, 실험실내에서 실험자가 피험자를 도와주면 이는 피험자에게 준 도움이 실험자와 피험자간의 친밀도를 높임으로써 실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피험자로 하여금 실험자를 돕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친숙성 요인의 영향을 밝힌 연구들로는 Berkowitz와 Friedman(1967), Horowitz(1968), Isen, Clark와 Schwartz(1976)등의 연구가 있다.

Brehm과 Cole(1966), Lerner와 Lichtman(1968), Schopler와 Thompson(1968)등은 위의 친숙성 요인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적절한 도움을 준 상대방은 친밀하게 평가되어 도움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적절한 도움을 준 상대방은 친밀하게 평가되지도 않았고 또 도움도 적게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Isen, Shalke, Clark와 Karp(1978)는 정적 감정상태가 타인들의 욕구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반응적이 되도록 하는 즉, 돕는 행동의 경향을 증가시키는 중개변인이라고 상정하였다.

한편, Weiner(1980), Meyer 와 Mulherin(1980)에 의하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났는지를 추론하는데 따라 돕는 행동이 달라진다. Weiner는 이 귀인(causal attribution)에는 세가지 차원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첫째가 안정성(stability)차원인데, 어떤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안정적이라 하며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불안정적이라 한다. 둘째는 소재(locus)차원인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행동자 자신에 의해 일어났으면 내적(internal)이라 하고 그 상황이 외부적(또는 환경적)원인에 의해 일어났으면 외적(external)이라 한다. 셋째로 통제성(controllability)차원이 있는데, 행동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가능(controllable)이라 하고 통제할 수 없으면 통제불능(uncontrollable)이라 한다.

Weiner(1980)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의 원인이 내적이고 통제가능할 때는 돕는 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그 상황의 원인이 외적이고 통제불능일 경우에는 돕는 행동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에 더하여, Hoffman(1975)은 남을 돕고자 하는 동기 중 공감(empathy)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review 하면서 공감능력은 인지발달 특히 역할수용능력(role-taking ability)과 병행하여 발달한다고 보았다. Hoffman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감은 “타인의 감정 및 사고에 대한 인지적 인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감능력은 구체적 조작기(약 7~8세 이후)에 이르러서야 성취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그는 아동들에 있어서 타인을 도우려는 동기의 초기 양상은 감정적(affective)인 측면이 강하여 상황의 원인이나 타인의 의도에 대한 사고보다는 그 상황에 있는 아동 자신의 감정상태가 더 아동의 돕는 행동을 지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이러한 양상은 아동이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면서 극복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중기나 후기(약 9~10세 이후)에 이르면 상황의 원인이나 타인의 의도에 대한 사고에 의해서 돕는 행동이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감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친숙성 요인은 어린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인지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귀인요인은 나이 어린 아동들보다는 나이든(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Ⅲ. 研究目的

본 연구는 아동들의 회사행동¹⁾에 미치는 친숙성변인과 귀인변인의 효과를 알아보면서 이

1) 회사행동이란 친사회적 행동의 한 범주로서, 타인에게서 받은 물건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행동을 말한다(Bar-Tal, 1976).

효과가 발달적으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앞서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설정한 예언은 다음과 같다.

예언 1. 1학년 아동들은 친숙성의 정도에 따라 회사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나(즉 친숙성이 높으면 회사량이 많을 것이며, 친숙성이 낮으면 회사량이 적을 것이다), 귀인방향에 따른 회사량의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언 2. 4학년 아동들은 귀인방향에 따라 회사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나(즉 귀인방향이 내적일 때는 회사량이 적을 것이며, 귀인방향이 외적일 때는 회사량이 많을 것이다), 친숙성의 정도에 따른 회사량의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실험설계상으로 말하면 학년변인과 친숙성변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며, 학년변인과 귀인변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 실험에서의 종속변인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제 1 실험자가 피험자에게 준 색블펜 3개 중 피험자가 제 2 실험자에게 회사한 색블펜의 갯수였다.

Ⅳ. 方 法

피험자. 서울시내 금호동에 위치한 금육국민학교 1학년 아동 52명과 4학년 아동 52명을 피험자로 하였다.

도구. 실험도구로는 크로바 블록—127S와 컴퓨터 자료처리 및 나오지 않는 색블펜 3개를 사용하였다. 실험전에 미리 크로바 블록으로 기본 모형을 만들어 놓은 후, 피험자로 하여금 이 모형과 동일한 모양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 모형에는 연결부분중 세 부분이 어렵도록 조작되어 있는데, 예비실험에서 1학년 아동의 경우 이 모형을 완성하는 데 평균 약 6분이 걸렸으며, 4학년 아동은 평균 약 4분 30초 정도가 소요되었다.

컴퓨터 처리지에는 녹색, 주황색 및 노란색 블펜으로 테두리와 밑줄을 그려넣어 피험자로 하여금 실험전에 자신이 받은 색블펜의 색깔이 컴퓨터 처리지에 그려져 있는 선의 색깔과 같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절차. 실험자는 2명으로서 제 1 실험자는 전체 실험과정을 통제하였고 제 2 실험자는 친숙성변인과 귀인변인을 조작하였다. 실험은 피험자들의 교실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과학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피험자가 실험실에 오면 제 1 실험자는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주었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온 학생들인데, 어린이들이 (제 2 실험자 앞에 있는 블록 모형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있는 모형과 똑같은 모양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우선 여기 있는 색블펜 세개(녹색, 주황색, 노란색)는 네가 이 일에 참가해 주어서 고맙다고

주는거니까 네가 가져도 돼. 자, 그럼 저기 있는 책상으로 가서 모양을 잘 만들어 보아라.”

위의 지시를 준 후 제 1 실험자는 피험자를 제 2 실험자가 있는 옆방 책상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높은 친숙성 조건의 경우, 제 2 실험자는 피험자가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연결부분에서 막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피험자를 도와주었다. 낮은 친숙성 조건의 경우, 제 2 실험자는 피험자가 모형을 만들고 있을 때 피험자 앞에 위치하여 피험자와는 무관하게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이 과제에서 15분 이상을 소요하고도 모형을 만들지 못하는 피험자는 실험을 중단시켰다. 제외된 피험자수는 1학년 아동 3명이었고 4학년 아동은 없었다. 제 1 실험자는 옆방에서 피험자의 작업이 끝나는 것을 관찰한 다음, 제 2 실험자와 피험자가 있는 방으로 가 제 2 실험자에게 다가가서 미리 준비한 컴퓨터 자료처리지를 주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이것은 귀인변인을 조작하기 위한 대화였다.

(1) 귀인방향이 외적인 조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제 1 실험자: “어제 하던 이 표를 색깔에 맞추어 다 완성해 주세요.”

제 2 실험자: “어떻게 하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돈지갑을 잃어버려서 필요한 색블펜을 사오지 못했어요. 이 표는 오늘 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

제 1 실험자: “돈지갑을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못 사왔단 말이죠? (제 2 실험자 앞에 놓여 있는 색블펜들을 가리키면서) 그 색블펜들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2 실험자는 직접 써보이면서)

제 2 실험자: “이것은 안 써져요.”

제 1 실험자: “이 표는 오늘 다 해가야만 하는데…….”

(2) 귀인방향이 내적인 조건의 경우 다음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제 1 실험자: “어제 하던 이 표를 색깔에 맞추어 다 완성해 주세요.”

제 2 실험자: “어떻게 하나? 아침에 돈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도중에 사러 내리기가 싫어서 필요한 색블펜들을 안 사왔어요.”

제 1 실험자: “도중에 사러가기 싫어서 사올 수 있는데도 안 사왔단 말이죠?” (제 2 실험자 앞에 놓여 있는 색블펜들을 가리키면서) 그 색블펜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2 실험자는 직접 써보이면서)

제 2 실험자: “이것은 안 써져요.”

제 1 실험자: “이 표는 오늘 다 해가야만 하는데…….”

이러한 대화를 끝낸 후 제 1 실험자는 피험자와 함께 제 1 실험자가 있던 방으로 와서 제 2 실험자의 곤경(즉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났는가(즉 귀인방향이 외적

인지 내적인지)를 알려 주었다. 그런 다음 피험자로 하여금 원래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네가 만일(제 2 실험자가 있는 방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네가 가진 색볼펜 중 주고 싶은 만큼만 나가는 문 옆에 놓여 있는 통 속에 넣고 가져라. 도와 주고 싶지 않거든 안넣고 가도돼. 자 그럼 교실로 돌아가거라.”

본 실험은 학년변인(1학년, 4학년의 2 수준) × 친숙성변인(고, 저의 2 수준) × 귀인변인(내적방향, 외적방향의 2 수준)의 3 요인설계였다. 각 조건당 피험자는 13명으로서 도합 104명이었으며, 피험자 배정은 난수표로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무선배정이었다. 종속변인은 각 실험조건에서 피험자가 회사한 색볼펜의 갯수였다.

V. 結 果

각 실험조건에 따라 피험자들이 회사한 색볼펜 갯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각 조건당 피험자가 회사한 색볼펜의 평균갯수²⁾

	친 숙 성 고		친 숙 성 저	
	외 적 귀 인	내 적 귀 인	외 적 귀 인	내 적 귀 인
1 학 년	2.31(1.11)	2.00(.82)	.92(.76)	.85(.80)
4 학 년	2.54(.97)	1.38(.65)	2.08(.86)	1.08(.95)

각 요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결과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학년, 친숙성, 귀인요인이 회사행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변량분석³⁾

Source	SS	df	Ms	F
학 년 (A)	1.63	1	1.63	2.13
A at b ₁	.48	1	.48	
A at b ₂	6.23	1	6.23	8.09*** ⁴⁾
A at c ₁	6.23	1	6.23	8.09**
A at c ₂	.48	1	.48	
친숙성 (B)	17.78	1	17.78	23.21**
B at a ₁	20.94	1	20.94	27.19**
B at a ₂	1.93	1	1.93	2.51
귀 인 (C)	10.47	1	10.47	13.67**
C at a ₁	.48	1	.48	
C at a ₂	15.08	1	15.08	19.58**

2)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3) a₁은 1학년, a₂는 4학년, b₁은 친숙성 고, b₂는 친숙성 저, c₁은 외적귀인방향, c₂는 내적귀인방향을 나타냄.

4) ** P<.01, * P<.05.

AB	5.08	1	5.08	6.63*
AC	5.09	1	5.09	6.64*
BC	.24	1	.24	
ABC	.01	1	.01	
W. cell	73.54	96	.77	
Totall	113.84	103		

표 2에서 보면, 두 변인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친숙성변인 : $F(1, 96) = 23.21$, $p < .01$; 귀인변인 : $F(1, 96) = 13.67$, $p < .01$), 학년변인과 친숙성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 ($F(1, 96) = 6.63$, $p < .05$) 및 학년변인과 귀인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 ($F(1, 96) = 6.64$, $p < .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상호작용에 대한 도해가 아래 <그림 1> 및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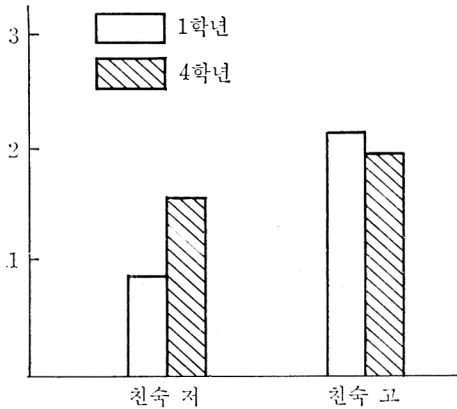


그림 1. 학년과 친숙성 사이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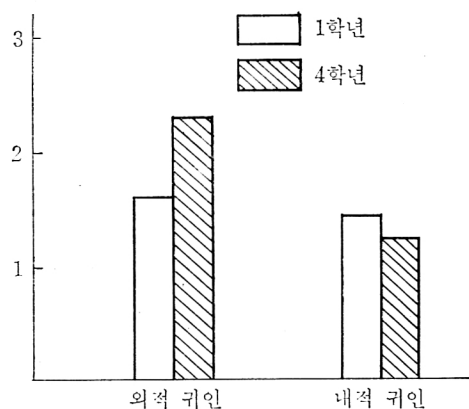


그림 2. 학년과 귀인 사이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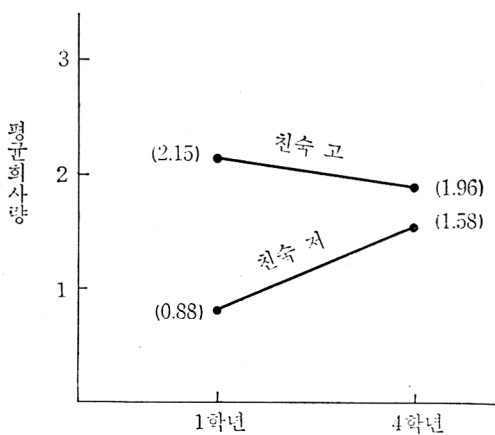


그림 3. 1학년과 4학년 아동들에 있어서 친숙성의 정도에 따른 희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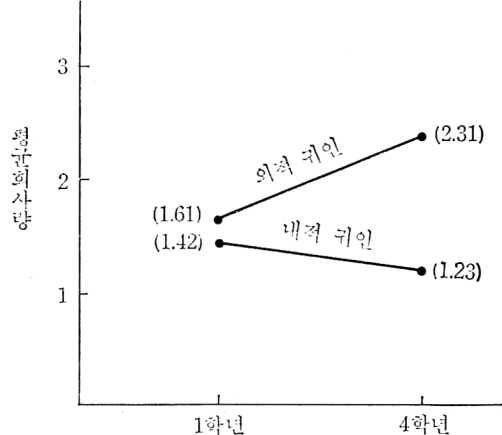


그림 4. 1학년과 4학년 아동들에 있어서 귀인방향에 따른 희사량

학년변인과 친숙성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 및 학년변인과 귀인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각 상호작용효과가 무엇에 기인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단순 주효과 분석을 하였으며, 이는 앞의 <표 2> 및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그림 3>을 보면, 1학년 아동들은 친숙성의 정도에 따라 회사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F(1, 96) = 27.19, p < .01$), 4학년 아동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F(1, 96) = 2.51, p > .05$). 이는 예언 1의 전자와 예언 2의 후자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그림 4>를 보면, 1학년 아동들은 귀인의 방향에 따른 회사량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F(1, 96) = .62, p > .10$), 4학년 아동들은 귀인의 방향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1, 96) = 19.58, p < .01$). 이 결과는 예언 1의 후자 및 예언 2의 전자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친숙성이 낮은 조건의 경우, 1학년 아동들의 회사량과 4학년 아동들의 회사량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F(1, 96) = 8.09, p < .01$), 귀인방향이 외적인 조건에서도 1학년과 4학년 아동 간에 회사량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F(1, 96) = 8.09, p < .01$).

VI. 論 議

본 연구는 아동들의 회사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친숙성요인과 귀인요인의 효과를 발달적인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볼 때, 1학년 아동들은 친숙성의 정도에 따라 그들이 회사하는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귀인의 방향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 1은 지지되었다. 또한 4학년 아동들은 귀인의 방향에 따라 그들의 회사량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친숙성의 정도에 따른 회사량의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 2도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1학년 아동들은 상대방과의 친숙성과 같은 감정적(affective)인 측면에서 타인의 곤경(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초보적인 조망능력(perspective-taking ability)을 획득하여(Hoffman, 1975; Moore, Underwood, & Rosenhan, 1973),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났는가를 판단하는 인지적 조망능력(cogni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을 획득함으로써(Waxler & Yarrow, 1977)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선별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앞서의 결과에서 볼 때, 친숙성이 낮은 조건의 경우 1학년 아동들의 회사량이 4학년 아동들의 회사량보다 유의미하게 적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학년 아동들은 자신과 친숙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났는지에 상관없이 회사량이 적은데 비하여, 4학년 아동들은 비록 상대방과의 친숙성이 낮더라도 그 상황의 원인이 상대

방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의 경우보다 더 회사를 많이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Bar-Tal 등(1981)의 주장 중에서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의 욕구 및 행위의 의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요구하며,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은 그러한 능력을 덜 요구한다는 주장에서도 위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들의 교육장면에서 이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저학년 수준의 아동들에게는 먼저 상대방과의 친숙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들로 하여금 팀을 이루어 협동놀이등을 하도록 한다거나, 교사가 어떤 과제를 주고 아동들이 협동하여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아동들 사이의 친숙성을 보다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을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현장 교육장면에 교사가 개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의 원인 및 타인의 의도 등을 명세화해 줌으로써 저학년 아동들의 조망수용능력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면서 본고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아동들의 회사회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에서 친숙성요인과 귀인요인을 조합하여 그 발달적 경향성을 보고자 하였는데, 이 두 요인 외에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여타요인들의 발달적 경향성을 밝히는 작업이 후속연구로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망수용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인과적 관계(Buckley, Siegel, & Ness, 1979)라든가 도덕판단능력의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간의 관계(Rubin & Schneider, 1973; Bar-Tal, Raviv, & Leiser, 1980)등을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일반화문제이다. 본 연구는 1학년과 4학년 아동들을 피험자로 사용하여 친숙성요인과 귀인요인 사이의 발달적 경향성을 밝혀 보고자 했으나 이 결과만으로는 1학년 이하 학령전 아동이나 4학년 이상의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위 두 요인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관대성(generosity)에 관한 Green 등(1974)의 연구에서 보면 관대성의 발달이 비교적 일관된 직선적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ystander intervention의 효과에 관한 Staub(1971)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시기에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지만 국민학교 중반에 가면 최고조에 도달했다가 다시 국민학교 시기가 끝날 무렵에는 감소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친숙성요인 및 귀인요인의 발달적 경향성에 대해서도 속단할 수 있는지 못하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參 考 文 獻

- 서 봉연, 친사회적 행동의 규정요인에 관한 고찰, 심리학의 연구문제, 1984, 1, 155—176.
- Bar-Tal, D. *Prosocial behavior*, New York: Wiley, 1976.
- Bar-Tal, D., Raviv, A., & Leiser, T.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behavior: Empirical evi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80, 16, 516—523.
- Bar-Tal, D., Raviv, A., & Shavit, N. Motives for helping behavior expressed by kindergarten and school children in Kibbutz and city, *Developmental Psychology*, 1981, 17, 766—772.
- Berkowitz, L., & Friedman, P. Some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7, 5, 217—225.
- Brehm, J.W., & Cole, A.H. Effect of a favor which reduces free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6, 3, 420—426.
- Buckley, N., Siegel, L.S., & Ness, S. Egocentrism,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79, 15, 329—330.
- Eisenberg, 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 Green, F.P., & Schneider, F.W. Age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boys on three measure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1974, 45, 133.
- Hoffman, M.L.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975, 11, 607—622.
- Horowitz, I.A. Effect of choice and locus of dependence on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8, 373—376.
- Isen, A.M., Shalke, T.E., Clark, M., & Karp, L. Affect, accessibility of material in memory and behavior: A cognitive loo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8, 36, 1—13.
- Krebs, D.L. Altruism—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970, 73, 258—302.
- Lerner, M.J., & Lichtman, R.R. Effects of perceived norms on attitudes and altruistic behavior toward a dependent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9, 226—232.
- Meyer, J.P., & Mulherin, A. From attribution to helping: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affect and expecta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 39, 201—210.
- Moore, B.S., Underwood, B., & Rosenhan, D.L. Affect and altruism, *Developmental Psychology*, 1973, 8, 99—104.
- Mussen, P.H., & Eisenberg-Berg, N.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1977.
- Pruitt, D.G. Reciprocity and credit building in a laboratory dy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8, 143—147.
- Rubin, K.H., & Schneider, F.W. The relation between moral judgment, egocentrism, and altruistic behavior, *Child Development*, 1973, 44, 661—665.
- Schopler, J., & Thompson, V. The role of attribution process in mediating amount of reciprocity for a fav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10, 233—250.

- Staub, E. Helping a person in distress: The influence of implicit and explicit "rules" of conduct on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1, 17, 134-144.
- Waxler, C., & Yarrow, M. Perspective-taking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977, 13, 87-88.
- Weiner, B. A cognitive (attribution)-emotion-action model of motivated behavior: An analysis of judgments of help-gi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 39, 186-200.
-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A. Child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 wards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1979, 50, 319-330.

A Developmental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iarity and Attribution on Children's Sharing Behavior

Song, Kil-Yun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mentally assess the effects of familiarity and attribution variables which contribute to sharing behavior of children.

The following predictions were tested:

(1) The children from grade 1 will share more in 「familiarity-high-condition」 than in 「familiarity-low-condition」, but they do not show any differences in two levels of 「attribution-condition」.

(2) The children from grade 4 will share more in 「external-uncontrollable-attribution condition」 than in 「internal-controllable-attribution condition」, but they do not show any differences in two levels of 「familiarity-condition」.

Subjects were 52 children from grade 1 and 52 children from grade 4.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diction 1 and 2 were all supported. Thus it was concluded that children from grade 1 were more affected by familiarity variable than by attribution variable, and that children from grade 4 were more affected by attribution variable than by familiarity variable. The developmental trend between familiarity and attribution variable was also discussed.